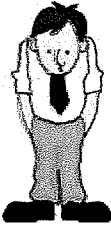


이희중



잘 나가는 폴 매카트니나 존 레논보다는 그들이 불쌍해 마지 않던 음울한 조지 해리슨, 또는 못난 링고 스타를 더 좋아하는 사람, 해바라기의 보스 이주호보다는 그의 마음에 따라 자주 교체되던 짝궁한테 더 눈길이 가던 사람, 비틀즈나 해바라기보다 그냥 켜둔 텔레비전처럼 노래한 다음 갈채 없이 슬며시 퇴장하는 삼류 가수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 또는 혼자 천천히 박수치는 사람,

김일보다 장영철을 더 좋아하는 사람, 프로레슬링은 쇼다, 라는 그의 말을 믿은 사람, 홍수환보다는 염동균을 더 좋아하는 사람, 말년에 그가 오른손을 접고 싸웠다는 사실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는 사람, 그들보다, 세미파이널을 피 튀기며 뛰는 삼류 복서들이, 또 그 세미파이널이 KO로 일찍 끝났을 때에 대비하여 월 수 없을지도 모를 싸움을 준비하는 복서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 진지하게 기억하는 사람

우리편이 골 넣었을 때 벤치에 앉은 후보선수들의 표정을 살피는 사람,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프로 선수, 1군이 되지 못한 2군 선수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 조세형이나 신창원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던 사람, 엄숙한 자리에 앉으면 사지가 뒤틀리는 사람, 평창동, 압구정동, 대치동이 남의 나라 같은 사람, 학창 시절, 선생님이 이름 기억해 부르면 불편했던 사람, 반장 패거리보다 사고뭉치들과 어울리던 사람, 자신이 바로 사고뭉치였던 사람, 돈 먹여 아들 군대 안 보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군대 갔다온 사람 통일을 사심 없이 바라는 사람,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기 때문에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b>갈보리교회</b>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 생활 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8권 4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0월 8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는다.

내가 믿지 않는 하느님 中 -J. 아리아스-



나약이라는 죄악 안에 인간을 '붙들어 매놓는' 하나님, 인간의 기쁨을 시기하여 중단시키는 하나님 자신을 '당신'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믿음을 가지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한 데 대하여 가끔 후회하는 하나님.

인간이 일하지 않더라도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을 만족하게 여기는 하나님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만을 불러일으키고 현세의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하나님.

지옥은 만원이고 천당은 거의 공석이라고 믿고 선교하는 자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미리 짜여진 해답을 가진 목사들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바치는 기도만을 원하고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배신한 이를 만나러 가지 않는 하나님.

다른 이들이 수고하기를 바라며 기도만 하는 이들의 하나님.

당신을 진지하게 원하는 이에게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인간과 사랑에 빠질 줄 모르는 하나님.

온갖 절망 속에서 내가 희망할 수 없는 하나님

◀그뻐 그랬지 ▶ 이웅평 대위 귀순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공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야구 경기가 중단 되었던 그 날은 미그 19기를 몰고 이웅평 대위가 귀순하던 날이었습니다.

1983년 그 날, 부대에서 경계경보를 듣고 완전군장을 꾸렸던 빛나는 일등병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하늘의 면류관을 쓴 자 중  
이 땅에서  
가시관 안 써본 자 없다.

◀인품따라 행하기▶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으로  
겸손하게 대하라.



# 주일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4(잠언 3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337장	다 같이
기도 Pray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20:8-11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십계명(4) "주일을 지킵시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98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3,403 + ₩30,000      총액:\$145,548

### ◆10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1	김순자	최재학	본당:김순자 정희자
8	김영길	고성일	현관:김교섭 최재학
15	노은숙	권용일	새교우:이광희
22	백재성	백재성	이근평장유진
29	양경배	이근평	

###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1	월초새벽기도회(1) 특별새벽기도회(2-7) 살롬,익투스 찬양(4) 구역예배(6:추석모임)
8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0)
29	이삭줍기주일

『교회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 1. 교우소식.

<퇴원> 김소연 권사. 많은 기도와 용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성국 목사> 한국방문으로 2주후에 뵙겠습니다.

<남십자성 공연> 우리교회 자녀들이 단원으로 있는 남십자성 공연이기에 마음이 갑니다. <일시> 오늘(8일) 7:00 PM. Bruce Mason Centre. Takapuna

\*권 근(권용일, 이지영 집사). 김다윗(김경구, 강은미 집사)

\*최윤희, 유니(최장한, 이종후 성도)

### 2. 특별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내 가정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에서 오랜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0일(화) 오후 1시 교회

\*따스하고 모든 것 다 품을 것 같은 어머니들의 기도, 교우들과 교회에게 더 없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 4. 금주 수요예배. 청년들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7:30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순수함이 가득한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열정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등 두드려 주며 믿음의 격려 부탁드립니다.

### ◀착한 시인들▶ 목련화

조영식

오-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길 잡이 목련화는  
새시대의 선구자요 배달의 얼이로다

오-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사랑 목련화야  
오-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처럼 순결하고 그대처럼 강인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그 노래에 그 사람이 부르지 않으면 웬지 생소하게 들리는 노래들이 내게는 있습니다. 목련화는 엄정행, 명태는 오현명, 남이 오시는지는 김화영, 포스터의 꿈길에서는 로저 와그너 합창단.....

봄이면 봄스럽게 피는 꽃들이 이젠 제 몫 다하고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꽃들이 아니면 봄이 아닐 듯하여 목 놓아 기다렸는데 어느새 잡히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나도 내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눈치와 가식없이 나와 내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